

## New Leader VI.

### 다급한 상황! 경험에서 오는 익숙함이 실수를 만든다.

####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위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분명해진다. 사람의 존재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없는 어떤 존재도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연약함이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이 필요한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반석, 공급자, 산성,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겸손이란? 힘이 없어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 경외함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실재가 된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5:8-9절이다.

[이사야 55:8-9] 8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9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 길 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 나의 길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높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배울 수 있다. 배운다는 것은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고인 물이 되지 않는다. **언제나 상황을 관통하는 하늘의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결정력을 갖는다. 그 결정력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본질)

#### 2. 통찰력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결정'이다. 리더의 자리는 결정의 자리이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만, 그로 인한 책임감 있는 것이다.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 그래서 세상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는 하늘의 통찰력이라 말할 수 있겠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길을 보는 것이 통찰력이다. 세상의 리더들은 솔로몬에게 있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솔로몬의 지혜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와 같은 순간들 속에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내 계획과 생각과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 계획과 생각과 방법을 의지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 3. 다급한 상황

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가? 다급한 상황, 위기 상황 때문이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결정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 \* 신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 (1) 신중한 사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세상에서 신중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세상에서의 신중함이란? 내가 지금 해야 할 결정을 나중에 미루었을 뿐이다. 급하게 일을 결정하는 사람보다는 안정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성급한 사람 보다 신중한 사람이 괜찮은 이유는 단 하나이다. 확보된 시간 안에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믿음이다.

##### (2)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있는 절대적 믿음은 이사야 55:8-9절 이다. 내 생각과 길 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분명 다르며, 높고 크다는 것에 대한 신뢰이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한다.**

#### 4. 익숙함이 주는 위험성

##### (1) 모세의 지팡이

오늘 이에 대한 예가 '모세'이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모세이다. 모세의 데스티니가 바로 '리더십'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모세의 힘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호렘산으로 부르셨다. 그곳에서 사명을 받는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네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에 대한 징표가 모세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팡이' 이다.

[출애굽기 4:1-4] 1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출애굽기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세의 리더십은 바로 지팡이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리더란? 철저하게 나의 생각, 방법,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 (2)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3-7] 3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4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 이제 내가 저기 호렙 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7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므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한다.

## (3) 민수기 20장

[민수기 20:8-12] 8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 떼가 마시게 하여라." 9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10 모세와 아론은 충회를 바위 앞에 불러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11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 떼가 마셨다. 12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충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비교해야 한다. 상황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 간 상태이다. 위기의 상태이다. 갈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5절에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말씀하신다. (나일강을 심판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그들에게 축복의 지팡이가 된다. 나일강의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다. '위기이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6절 '바위를 치라' 말씀하신다.

민수기 20장은 더 심각하다. 미리암이 죽었을 정도로 시간이 흐른 상황이다. 그런데 그들의 완고함은 변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상황에 가니 다시 반역한다 (10절-반역자라 한다. 반역자는 들으시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하신다(8절).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7장과 다르다.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상황은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법은 다르다. 출애굽기 17장은 바위를 치는 것이고, 민수기 20장은 명령하는 것이다.

## (4) 모세의 실수

모세는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 지팡이로 바위를 친 이 일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리더십'이라 명하신다. 이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생각, 내 방법, 익숙함, 안정감을 버려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 생각, 내 방법, 과거의 간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익숙함의 버튼을 버려야 한다. 새롭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경험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한다. 내 경험, 생각, 방법으로부터 나오는 익숙함과 안정감을 버려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 5. 새로운 하나님 - 뉴리더 (Fresh Mind)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신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다'라는 의미이다. 사랑에 익숙함은 없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야 한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가? 우리 안에 새로운 더 큰 갈망과 소원이 필요하다. 익숙함에서 나오라. 새 부대가 되어라. 종교적 형식주의, 친밀감이 없는 율법주의에서 나와 새 술을 마셔야 한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움을 만든다.

[예레미야애가 3:21-23] 21 그러나 마음 속으로 꿈꿈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22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공훈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23 주님의 사랑과 공훈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큼니다."